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2차 봉헌예배 및 광림신학교 제1회 수료식

복음의 거룩한 캠프,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의 거점이 되다

아프리카 잠비아에 세워진 광림미션센터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선교적 이정표를 세웠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2026년 5월 26일 오후 3시, 새롭게 건축된 광림채플에서 제2차 봉헌예배를 드리고 이어 잠비아 광림신학교 제1회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날 예배에는 한국에서 방문한 25명의 일행과 현지 목회자 및 성도들, 학생들이 함께 참석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지난 2023년 제1교육동과 선교사 숙소, 게스트하우스를 건축한 이후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교육·선교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왔다. 방과 후 교실과 유치원 운영은 물론, 미혼모와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신앙 인식 교육, 현지 교회 리더들을 위한 신학교 세미나 등이 활발히 진행되며 지역사회 속에서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러한 사역의 성장과 필요에 따라 2024년

말부터 채플과 제2교육동, 기숙사동 건축 계획이 본격화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번에 봉헌된 광림채플은 약 400㎡ 규모로 250석의 메인 채플홀과 소회의실, 사무공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2층 규모의 제2교육동에는 총 9개의 강의실과 ICT 교실이 조성될 예정이며, 기숙사동은 최대 48명의 학생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남녀 공간을 분리하여 설계되었다.

이 밖에도 약 80~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공간이 함께 마련되어 공동체 사역과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아직 제2교육동 등 일부 시설은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채플은 현재 예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지 사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날 한국 방문단이 미션센터에 도착했을

때, 광림스쿨 학생들은 환영 찬양으로 일행을 맞이하며 큰 감동을 전했다.

봉헌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복음의 거룩한 캠프'라는 설교를 통해 "잠비아 광림미션센터는 단순히 하나의 건물이 완공된 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헌신이며,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의 결과"라고 강조하며, "이 미션센터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며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이심을 믿고 배우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축사에서는 케냐 감리교회 감독회장 존 마롬바 감독과 UMC 잠비아 총리사 데이비드 칭겔레수 목사가 광림미션센터의 사역과 비전을 축복하며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기를 기원했다.

봉헌식과 함께 진행된 잠비아 광림신학교

제1회 수료식도 큰 의미를 더했다. 광림신학교는 미국 웨슬리신학교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3년 과정의 신학교육 프로그램이며, 이번에 총 16명의 학생들이 첫 수료의 결실을 맺었다.



수료자 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한 해리스 피리 목사는 "이처럼 훌륭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준 광림교회와 웨슬리신학교에 감사드린다"며,

→ 3면에 계속

믿음의 붉은 줄을 드리우라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수 2:21)

사람의 인생은 매 순간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긴장 속에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그 선택을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포기하는 결단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동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동물적 동기, 도덕적 동기, 신앙적 동기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신앙적 동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실존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를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는 존재의 의미를 얻습니다. 신앙적 동기에 의하여 결단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존재의 의미, 곧 내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둘째로 사명의 의미를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명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셋째는 현실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결단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신앙적인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의 결단이 현실적인 의미를 넘어 믿음의 눈으로 먼 미래에 있을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신앙적 동기의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이 시작되자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게 합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성문 옆 라합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피부색이나 옷 차림이 다르기 때문에 정탐꾼이 여리고 성에 들어왔다는 정보가 여리고 성의 왕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군대를 보내어 기생 라합의 집을 수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말하며 위기를 모면케 합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들을 굶은 밧줄에 달아서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드리우면 이 집에 거하는 한 사람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다짐을 하고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다른 집들은 모조리 불 태웠지만 붉은 줄을 드리운 기생 라합의 집만은 구원을 받았었습니다. 기생 라합,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적인 동기로서의 선택과 결단이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놓아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삶으로 증거되는 믿음

기생 라합은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었습



여호수아 2:15-21

15.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16.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할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17.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18.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네 집에 모으라 19.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

니다. 라합의 신앙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도와 주었고, 그들을 살려 주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그에 걸맞는 행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 운동력이 있으며 생명력이 나타나 그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행위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고 요청하는 시대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고백과 더불어 행동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행할 때, 그 믿음에 힘이 생기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아라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두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집에 붉은 줄을 드리우면 라합의 가족과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믿음의 눈은 눈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보다 깊게, 보다 멀리 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약속, 단순히 그들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이 성취될 것임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광림교회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특

별히 올해는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와 안디옥 개신교회 봉헌을 위해 모든 교우들이 기도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광림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며 결단했기에, 어두운 아프리카 땅에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세계 선교 역사에 길이 남을 안디옥개신교회를 새롭게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여 이 놀라운 일들을 성취할 것입니다.

셋째,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라

붉은 줄을 드리웠다는 것은 온전한 구원을 열망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은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를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구원은 매일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기생 라합은 이미 구원을 얻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의 집에 붉은 줄을 드리웠다는 것,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붉은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 아래에서 매일 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 매일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과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기생 라합,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는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 온전한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삶, 그리고 온전한 구원을 갈망하며 지속적인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여기에 놀라운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 1면에 이어

“잠비아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매우 귀한 경험이었고, 목회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기숙사동 봉헌을 통해 잠비아뿐 아니라 인접한 8개국을 포함한 아프리카 전역의 학생들이 머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신학자들이 직접 방문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제2교육동이 완공되면

보다 체계적인 신학교육 환경이 갖추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림미션센터는 신학교육뿐 아니라 초등교육 사역에도 힘쓰고 있다. 현재 광림스쿨에는 2개 학년 약 60여 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매년 한 학년씩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기독교 가치관에 기반한 교육과 지역사회 인식 변화, 그리고 교육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최성령 선교사는 “주변 지역에서 좋은 학교로 인정받으며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잠비아와

아프리카를 향한 선교와 교육 사역이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국회조찬기도회, 김정석 감독회장 말씀 전해



지난 5월 13일(수) 아침,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조찬기도회 가정의 달 감사예배’가 열렸다. 이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서일준 의원(국민의힘)의 대표기도와 광림교회 갈릴리중창단은 ‘나를 바꾼 주의 십자가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의 찬양을 드렸다.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한교총 대표회장)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출애굽기 4:1~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정석 감독은 먼저 “국회조찬기도회가 우리 사회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길 바란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80세의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셨고 지팡이를 들고 있던 모세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사용하기 원하신다. 모든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힘을 성경적 가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특별 기도에서는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라와 국민 통합, 국회를 위하여’를 주제로 기도했으며, 국회 성가대의 ‘주의 기도’ 봉헌 찬양에 이어 홍사진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진 2부 인사 순서에서는 송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조찬기도회 회장)과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국회조찬기도회 회장)이 김정석 감독에게 제헌국회기도문패를 전달했다. 송기현 의원과 윤상현 의원은 인사를 통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시기다. 국회조찬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국민화합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조찬기도회 지도위원인 장현일 목사는 “국회조찬기도회가 지난 61년 동안 나라와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계속해서 국회 가운데 기도의 향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득섭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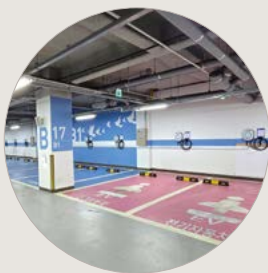
포토 뉴스



제3회 장천포럼
제3회 장천포럼이 5월 22일(금)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AI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장천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렸다.



세례·입교 예식
5월 31일(주일) 저녁예배 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세례·입교 예식이 있다.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전기차 충전 시설이 5월 21일부터 사회봉사관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성도들이 이용 가능해졌다.

감독회장 동정



- | | |
|---------|-------------------|
| 5/11 | 한교총 연합운동 공로자 감사예배 |
| 5/12 |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 5/13 | 수요치유의 신학 |
| 5/15 | Step 4 영성수련회 |
| 5/17 | 빌리그래함 전도집회 |
| 5/19 |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 5/20 | 수요치유의 신학 |
| 5/22 | 제3회 장천포럼 |
| 5/24 | 선교주일 |
| | 성령강림주일 |
| | 웨슬리회심기념주일 |
| 5/25~30 |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
| | 2차 봉헌예배 |
| | 잠비아 광림신학교 1기 수료식 |
| 5/31 | 세례 예식 |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제3기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 열려



광림교회는 5월 14일(목) ~ 16일(토)까지 광림세미나하우스에서 제3기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는 광림교회 평신도 지도자 양육 과정 가운데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이며, Step 1·2·3 과정을 수료한 성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 진행되는 영성훈련이다. 이번 세미나에는 각 교구의 추천을 받은 성도 34명이 참석해 예수님의 부르심과 공생애,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별히 세미나 기간에 진행된 묵상과 나눔, 기도회는 성도

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과 회복의 은혜를 전했다. 새롭게 단장된 광림세미나하우스는 자연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영성세미나를 진행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었고, 참석자들은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며 쉼과 치유, 회복을 경험했다. 또한 김정석 감독회장이 방문하여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묵회자들의 섬김과 기도 가운데 참석자들은 상한 마음의 치유와 영적 회복을 경험했고, 복음의 열정과 사명의 마음을 새롭게 했다.

이번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에 참석한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본다.

한승수 권사(18교구)
제가 참석한 평신도지도자교육 Step 4 Living Jesus 영성세미나는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소리로부터 잠시 벗어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다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성세미나의 기대와 소망은 불같은 성령 체험이었습니다. 지친 삶으로 인해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졌기에, 이번 세미나를 영성의 도피성으로 삼아 피난하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함께 참석한 3기 수강생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영성세미나는 믿음을 회복하여 새로운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수정 성도 (23교구)
이번 영성세미나에 참석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민과 염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첫날 배정받은 방 번호는 220호였는데 그 순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떠오른 말씀이라 생각했지만, 세미나가 진행될수록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성세미나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이 보이면 순종하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보이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답답하며 조급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표적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를 더욱 신뢰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제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앞으로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소현수 기자



페달을 밟으며 나누는 믿음, 함께 달리는 은혜의 길

27교구 ‘팀광림 자전거 속회’

광림교회 27교구에는 조금 특별한 속회가 있다. 매주 목요일 속회로 모여 말씀과 기도로 영을 채우고, 토요일이면 자전거 안장 위에 올라 온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달리는 ‘팀광림 자전거 속회’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영과 육을 함께 단련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속회는, 건강한 몸과 건강한 신앙이 결코 둘이 아님을 속도원들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다.

자전거 속회의 명칭은 ‘팀광림’이다. 27교구 정하원 장로를 주축으로, 팀광림의 대장 임시호 권사를 비롯해 이윤환·이성수·이성곤·박흥인·양현웅·이준재·이미선 권사로 구성된 단단한 믿음의 팀이다. 직업도, 나이도, 걸어온 길도 모두 제각각이지만 함께 페달을 밟는 순간만큼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달리는 한 몸이 된다.

이 특별한 속회 모임이 시작된 것은 속도원들이 공통적으로 자전거를 즐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였다. 속회 안에서 공동의 취미를 나누며 교제를 이어가다 보니 자연스레 함께 페달을 밟게 되었고, 함께 달리다 보니 어느새 기도가 생겨났다. 출발 전 드리는 짧은 기도, 라이딩 중 휴식 시간에 나누는 말씀, 목적지에 닿았을 때 올려드리는 감사, 팀광림의 토요일 라이딩은 그렇게 자연스레 예



배의 연장이 되었다.

팀광림 속도원들은 교회 행사나 날씨가 좋은 날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요일 이른 아침부터 라이딩 길에 나선다. 수도권 한강변 자전거도로는 물론이고 춘천·영종도·설악산 등 전국 각지의 자전거 코스를 함께 달렸다.

작년 7월에는 한여름 염천하(炎天下)에도 불구하고 7번 국도 국토 종주라는 대장정에 도전했었다. 강릉을 출발해 1박 2일간 200km 이상 동해안 자전거 도로와 공도를 오가며 달렸으나 당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아쉽게도 후포항에서 마무리해야 했지만, 그 길에서 속도원이 함께 흘린 땀은 완주라

는 결과보다 더 깊은 은혜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남산과 북악스카이웨이 긴 오르막 앞에서도 속도원들은 서로를 돌아보며 달린다. 뒤쳐진 이를 기다리고, 지친 이를 격려하며, 함께 정상에 오른 뒤 나누는 기쁨은 각별하다. “자전거 위에서 배운 것들이 신앙생활과 참 많이 닮아있습니다. 혼자서는 버거운 길도 주님과 함께, 속도원들과 함께라면 넘을 수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이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상쾌한 바람을 허락하시거든요.” 그 말 한마디가 지친 페달에 다시 힘을 불어넣는다.

우리 팀광림 자전거 속회가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그 섬김의 자세에 있다. 세상의 여느 자

전거 동호회와 달리, 속도원들은 라이딩 중에도 서로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중보한다. 각종 교회 행사에는 누구보다 발 빠르게 달려가 기꺼이 사역을 감당하고, 라이딩을 마친 뒤에는 함께 애찬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깊은 교제와 예배의 시간을 만들어 내고, 그런 섬김들이 쌓여 우리 자전거 속회는 광림교회 27교구의 단단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속회를 이끄는 정하원 장로의 “처음에는 자전거가 먼저였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속회가 먼저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달리고, 함께 기도하다 보니 서로가 없으면 안 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처럼 팀광림의 페달은 이제 세상의 목적지보다 각자의 신앙적인 목적지를 향한다. 그래서 27교구 팀광림 자전거 속회는 오늘도 페달을 밟으며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는가. 그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다. 주님 앞으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이성곤 권사(27교구)

청년부

‘한 사람’을 품고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청년부 교구별 웰컴파티



광림교회 청년부는 4월과 5월, 복음전도의 달을 맞아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전도의 걸음을 이어 왔다. 각자의 자리에서 VIP를 품고 기도하는 일부터, 속회와 교구 안에서 서로의 이름을 나누고 중보하는 시간까지, 이번 복음전도의 달은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시 서는 과정이기도 했다.

그 여정의 마지막 자리로 각 교구는 주일 예배 후 저녁 시간부터 교구별 웰컴파티를 이어갔다. 이번 교구별 웰컴파티는 새롭게 공동체에 나온 청년들과 한동안 예배와 모임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지체들을 초청하여, 이들이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고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마련된 시간이었으며, 단순히 함께 모여 즐기는 행사를 넘어,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교구에서 관계를 새롭게

이어 가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그중, 1교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키워 가는 시간으로 웰컴파티를 진행했다. 특별히 교회 학교 시절의 익숙한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달란트’를 활용해, 새가족과 기존 교구원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게임을 마련함으로써, 함께 게임에 참여해 달란트를 모으는 과정 속에서 웃음과 대화가 이어졌고, 어색했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다. 2교구 또한 새가족과 교구원들이 함께 친해지고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달란트 시장’을 기획했다. 각 부스에서는 화장품, 옷, 잡화 등을 사고팔며 새가족과 기존 교구원들이 부담 없이 어울릴 수 있었고,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며 웃음을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3교구는 새가족과 부진자를 대상으로 웰컴

파티를 기획했으며, 단순히 함께 모이는 시간을 넘어, 교구 안에서도 아직 깊이 친해지지 못했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비뽑기를 통해 팀을 배정하고, 조별 레크리에이션과 질문지 나눔, 식사 교제의 시간을 마련했다. 함께 웃고 대화함을 통해 처음 온 이들도 부담 없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고, 기존 교구원들 역시 서로를 새롭게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4교구는 새가족과 기존 교구원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형 부스를 중심으로 웰컴파티를 진행했다. 미니 달력 만들기, 달고나 만들기, 릴스 찍기, TCI 검사, 패션 조인 등 여러 부스를 마련해 각자가 관심 있는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웰컴파티는 단순히 정해진 자리에 앉아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만나고 대화하며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며, 새가족을 향한 환대의 마음을 나누고, 교구 안의 청년들이 함께 웃으며 가까워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5교구는 지난 5월 10일, 새가족들과 함께 하는 웰컴파티를 먼저 진행했으며, 이날 파티는 새롭게 공동체에 나온 이들이 광림교회 청년부의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교구 안에서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레크리에이션과 팀별 성경퀴즈, ‘광림 골든벨’ 등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새가족과 기존 교구원들이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청년부 공동체의 따뜻함을 새가족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처음 온 이들도 어색함을 내려놓고 함께 웃으며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교구별 웰컴파티는 복음전도의 달 동안 품어 온 ‘한 영혼’을 향한 기도가 실제 만남과 환대의 자리로 이어진 시간이었다. 각 교구는 이번 시간을 통해 새가족과 부진자가 공동체 안에 잘 연결되고, 예배와 속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를 바라고 있다. 광림청년부에서는 새롭게 연결된 이들이 예배하고 교제하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있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교회학교 아동부, 사회봉사관 새 예배실로 이전

다음 세대를 위해 더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 공간 마련



지난 5월 10일, 본당 뒤 교육관에 위치했던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실이 사회봉사관 5층으로 전면 이전했다. 이날 교회학교 리모델링 감사식도 함께 열려 새 공간에서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기존 교육관은 오랜 세월 다음 세대의 신앙이 자라나던 소중한 터전이자 아이들과 교사들의 수많은 추억이 어린 공간이었다. 그러나 교육 부서가 성장하면서 공간 활용과 이동 동선에 어려움이 커졌고, 특히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에게는 주차장이 있는 사회봉사관에서 영유아 예배실을 거쳐, 다시 교육관에 있는 아동부 예배실까지 이동해야 하는 동선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남녀 화장실이 서로 다른 층에 있어 아이들과 교사가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컸고, 노후화된 시설 역

시 멀티미디어에 익숙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는 데 한계로 작용했다. 이에 다음 세대에게 더 안전하고 쾌적한 예배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공감대가 모여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교회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공간 배치와 활용 방안을 논의했고, 이번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롭게 마련된 공간에는 선명한 스크린과 최신 음향 시스템이 구축되어 아이들의 예배 몰입도를 높였으며, 벽면 불박이장 등 맞춤형 수납공간으로 교육 기자재 정리 문제도 해결되었다. 부모들의 이동 동선은 대폭 줄어들었고, 어린이 예배실이 주차장과 같은 사회봉사관에 위치해 예배 전후로 자녀 인계 과

정도 한결 편리해졌다. 남녀 화장실이 같은 층에 마련되고, 전용 간식 준비실과 부서 교사실도 별도로 갖춰져 주일 사역의 편의성이 높아졌다. 현재 미취학 부서(영아부·유아부·유치부·미취학 어와나)와 사이닝스쿨, 교육국 사무실은 사회봉사관 3층에, 취학 부서(유년부·초등부·소년부·취학 어와나)와 사이닝 유스, 교사실, 독서실, 간식 준비실은 5층에 자리하고 있다.

교회학교 리모델링 감사식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은 “교회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장소를 만들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교회학교 박범규 목사는 “이 공간이 주일에만 잠시 오는 건물에 머물지 않고, 평일에도 아이들이 찾아와 꿈을 키우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초청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영적 놀이터 Safe Zone’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며 아동부 이전 소감을 밝혔다. 이어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찬양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영적 성장의 깊이를 더해줄 ‘어린이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야심 차게 기획 중입니다”라며 성

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요청했다. 새 공간을 경험한 교사들은 예배 환경과 이동 동선이 개선되면서 본질적인 교육과 돌봄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부서가 함께 모임에서 분위기도 한층 활기차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구 교육관은 청년부와 성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박희윤 기자



목회현장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광림의 내일을 보다

교회학교 연합예배 ‘샤이닝 월드’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에서는 ‘샤이닝 월드’(Shining World)라는 주제로 미취학부와 아동부 어린이들이 각각의 예배 공간에서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변함없는 소망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복음 전도 이후, 복음의 열정이 한번의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준비한 소중한 후속의 자리였습니다. 처음 교회 문턱을 넘으며 낯설어하던 ‘새 친구’들이 선생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한동안 자리를 비웠던 아이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찬양하는 모습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배와 행사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교사들과 봉사자들의 수고 덕분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아이들의 안전과 기쁨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준 그 사랑의 섬김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웃고 뛰놀며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와 봉사자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샤이닝 월드’는 연령대별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미취학부 아이들이 모인 컨벤션홀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이 펼쳐졌고, 모래로 그려지는 성경 이야기에 몰입한 어린 심령들의 모습은 마치 천국 잔치를 보는 듯했습니다. 아동부 어린이들이 모인 장천아트홀에서는 에너지 넘

치는 레크리에이션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들과 한 팀이 되어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은 우리 광림의 미래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희망이 가득하기를 보여주는 생생한 율림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생명들이 빛을 잃지 않고 자라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유대감을 누리는 곳이며, 우리는 그 기쁨의 터전을 정성껏 닦아주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광림교회 교회학교가 한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으로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행복을 경험하도록 힘쓰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단순한 즐거움으로 끝나지 않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신앙의 추억이자 믿음의 밑거름으로 깊이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말씀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

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막 10:14). 이번 행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단순한 즐거움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인 공들이 광림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거룩한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세상을 밝힐 ‘샤이닝 월드’의 주역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새롭게 발을 들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어린이들을 위한 기도 한 줄을 더해주시고, 아이들을 마주칠 때마다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 광림의 내일이 있습니다. 그 내일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의 믿음이 환하게 빛나는 광림 제단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범규 목사(교회학교)

광림남교회

은혜의 축제, 유스체육대회



지난 5월 25일, 광림남교회는 초등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한자리에 모인 ‘유스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교회에 첫발을 내디딘 새 친구와 새가족들이 참석하여, 어색함을 허물고 진정한 하나 됨을 누리는 ‘연합과 환대의 장’이었습니다.

푸른 5월의 하늘 아래 진행된 체육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습니다. 녹색 그라운드를 누비며 패기를 보여준 축구를 시작으로, 공을 피하기 위해 몸을 움직일 때마다 웃음꽃이 피어난 피구, 지혜를 모아 한목소리로 정답을 외쳤던 퀴즈 대결까지 청장년들과 청소년들이 뒹영키며 모두 동심으로 돌아간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기성세대까지 바통을 이어받고 트랙을 달리는 모습은 단순한 달리기 넘어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넘어진 팀원에게는 격려의 박수를, 결승선을 통과한 성도에게는 아낌없는 환호를 보내며 운동장은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가 특별했던 이유는 ‘나이와

세대의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점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의 지치지 않는 에너지와 청년들의 열정, 그리고 청장년들의 든든한 배려가 어우러지며 퍼즐 조각이 맞물리듯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기기 위해 남을 밀어내는 경쟁이 아니라, 서로의 안전을 챙기고 양보하는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이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150명의 땀과 웃음으로 채워진 이번 유스체육대회는 단순한 체육 행사를 넘어, 사랑과 연합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축제였습니다. 경기를 모두 마치고 서로의 어깨를 토닥이며 음료를 나누는 성도들의 밝은 얼굴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뿜어내는 건강한 생명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달렸던 이 기억은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체육대회에서 보여준 환대와 연합의 모습처럼, 광림남교회 성도들은 앞으로 믿음의 경주에서도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며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갈 것입니다.

박휘원 전도사(광림남교회)

광림북교회

연합 체육 한마당



4월 총력전도의 열기가 남아있는 5월 10일 주일, 광림북교회 아동부와 중고등부, 몽골 공동체가 함께 연합체육 한마당으로 모였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주로 어울렸던 교회학교 아이들도 이 날 만큼은 언어와 나이를 넘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어색했던 서로가 이 날 만큼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의 목표를 이뤄가는 시간 속에서, 모두가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한국어와 몽골어로 드리는 찬양, 그리고 기도,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했고, 목사님의 개회사와 함께 ‘체육 한마당’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할 준비행사를 통해서 팀 대항전으로 진행되었고, 어색함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모두 한마음이 되어 합성과 응원으로 화합의 장을 즐겼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한 청장년 성도들도 때로는 선수로, 때로는 심판으로 서로를 섬기며 아이들과 함께 ‘체육 한마당’에 함께 했습니다.

수호천사 피구와 단체 줄넘기, 줄다리기와

같은 팀 시합으로 경기 중에도 포기하는 초등학교생들을 중고등 선배들이 지지해 주며, 응원과 격려로 연합하는 모습에 어른들이 큰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합 체육 한마당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한 ‘미션 이어달리기’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미션들과 주자들의 반전 실력에 등수를 잊고 모두가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마지막 정리까지 함께하는 아이들과 몽골 공동체의 모습에는 피곤함 대신 행복이 있었습니다.

민족과 세대가 하나 된 ‘연합 체육 한마당’을 통해 누린 연합의 기쁨은, 광림북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에 더욱 기뻐하셨을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기도와 헌신으로 후원해 주신 광림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광림북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정훈 전도사(광림북교회)

실업인선교회 춘계영성수련회

사명을 마음에 새기며 회복의 시간 가져



지난 5월 15~16일, 광림교회 실업인선교회 회원들은 문경에 위치한 이화여자대학교 고사리수련관에서 1박 2일간 춘계영성수련회를 가졌다. 실업인선교회(이하 실선)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 현실 속에 잠깐의 쉼조차 부담으로 다가오는 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으로 예배의 자리를 선택했다.

찬양으로 시작된 예배는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었다. 예배를 인도한 선영진 목사(1선교구)는 ‘인생의 빈 들에도 은혜가 있다’(막 6:34~44)는 말씀을 통해 빈 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빈 들이 되기를 권면했다.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작은 헌신까지도 기억하시며 풍성한 은

혜로 채우시는 분임을 전했다. 또한 빈 들의 경험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자리가 되어 평생의 은혜와 비범한 신앙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 속에서 회원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시간을 온전히 누렸다. 토닥토닥 마음을 어루

만지는 말씀 가운데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며, 서로를 중보하고 응원하고 위로를 나눴다. 실선 회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기업이 곧 예배의 현장이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에, 회원들은 기도 없이 나아갔을 때의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결정의 순간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택할지, 매 순간이 시험의 연속이다.

안경섭 장로(실업인선교회 회장)는 바쁜 가운데서도 순종의 마음으로 참여한 회원들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야 했던 회원 모두에게 감사와 위로를 전했다. 그러면서 “올 한 해 실선 회원 모두가 더욱 예배와 말씀,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온전히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이선아 권사(실업인선교회)

“초등부는 예배의 습관을 배우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초등교육위원회 - 이종현 장로



2024년 장로로 피택된 이종현 장로는 현재 광림교회 초등부 위원장으로 섬기며 다음 세대 사역의 현장을 지키고 있다. 오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현지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과 봉사를 이어왔다. 다시 광림교회로 돌아오며 모교회의 품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화려하게 드러나는 리더십보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종현 장로를 만나 초등부 사역과 다음 세대를 향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어떤 마음으로 초등부 사역을 맡고 계신가요?
광림교회 안에서 교회학교 사역은 처음이

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주일학교 봉사도 많이 했지만, 막상 광림교회에서 초등부를 맡는다는 것은 또 다른 부담이 있었죠. ‘내가 과연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의 길로 이끄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했고, 교회가 맡겨주시는 자리를 따라가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유년부를 지나 올라온 아이들이 처음으로 예배의 틀을 배우기 때문에 초등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을 적으며 듣는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적고 안 적고의 차이’가 결국 시간이 지나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초등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과 과외 일정 속에서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데, 주일날 그 한 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학교 성경학교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 역시 성경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은데요. 아이들이 안수기도 시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며 감사와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평생 신앙의 뿌리가 된다고 믿습니다. 이후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힘이 그 시기의 예배와 말씀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등부 교사들의 헌신은? 사실 교회학교는 이름도 없이 자리를 지키는 교사들의 헌신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30년 동안 묵묵히 교회학교를 지켜온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계속 자리를 지키

는 겁니다. 아이들을 1년, 2년 양육하다 보면 정이 들고, 결국 떠나지 못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참 귀합니다. 저는 교사들이야말로 광림교회 교회학교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교사 양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시대는 코로나 이후 개인주의가 강해졌고 공동체 문화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사들도 계속 훈련받고 성장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부를 위해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은? 현재 초등부는 1·2부를 합쳐 약 10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150명의 예배자’입니다.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예배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교사들도 가정과 직장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보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배 시작 5분 전에만 와도 훨씬 안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광림교회 초등부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아이들, 함께 예배하고 싶은 친구들이 언제나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혜선 기자



한눈에 명화로 보는 구약성경 이야기

28



시나이산 위의 모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 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 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 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 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 니라”(출 19:3-6)

얼마 후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에 도착했다. 이드로는 딸 십보라와 두 손자 게르숨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의 장막을 찾았다. 서로 문안하고 그 동안 이집트에서 겪은 과정과 기적적인 사건을 나누었다. 그러자 이드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기 위해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쳤다. 또한, 제사장이었던 이드로는 모세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를 미워하는 사람을 세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세워 그들이 재판하게 하라.”

이드로의 조언을 받아들인 모세는 자신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내려놓았다. 이후 큰 사건은 모세가 맡고 작은 일은 각 부장이 맡아서 처리했다.

모세는 시나이산 앞에 장막을 치게 한 후,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올 예정이었다. 아론을 지도자로 남겨두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단둘이 시나이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산등성이에 가까워지자 모세는 자신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동안 여호수아에게 떨어져 있으라고 명령하였다.

모세는 40일 낮과 밤을 그곳에 있었다. 그동안 시나이산은 두꺼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나타났다. 모세는 커다란 석판 두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십계명(十誡命, 하나님이 계시한 열 가지 계명)이라 부르는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었다.

모세의 분노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출 32:17-20)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 없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다. 아론은 지도자로서는 무능했다. 그가 제대로 통솔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 그대로 이집트 마을이 되어버렸다.

유대인들은 금 장신구를 모아서 예전부터 이집트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었던 송아지를



본뜬 우상을 만들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에워싸고 춤을 추고 있을 때 모세가 돌아왔다. 이 광경을 본 모세는 몹시 화가 났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던 노랫소리와 고함 소리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격노한 그는 하나님께 받은 석판을 땅바닥에 던져 부수어 버렸다. 그런 다음 황금 송아지 우상을 끄집어 내려서 파괴하고, 이 위험한 반란을 진압할 지원자를 구했다. 여러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만이 그를 도우려 했다.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이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모두 죽이고, 모반에 앞장섰던 사람들과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했던 이들을 엄중히 처벌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의 야영지는 고요했다. 이

▲ **황금 송아지 숭배**_ 모세가 시나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동안 부패해진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춤을 추고 있는 장면이다. 테오도르 헬름브레커 작품

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천 명 가량이 죽었다. 이 사건으로 크게 낙담한 모세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행동했다. 사람들에게는 지도자 이상이 필요했으며, 성문법(成文法,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춘 법)이 요구되었다.

시나이산은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중 첫 번째 선지자인 모세에게 계시를 내린 장소였다. 이후 선지자들은 비겁함과 사악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인류에게 알려 왔다.

광림 뉴스레터

◀ **분노한 모세**_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석판을 던지는 장면이다. 코시모 로셀리 작품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탬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문의: 빛의 숲 서점(02-2056-5771)

